

배포일시	2011.06.13.(월) 11:00 (총4매)	보도시점	즉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	담당자	대장 박남철
		전화번호	032-761-9969

< 1개월 전망 (2011년 6월 21일 ~ 7월 20일) >

— 강수량 많겠음 —

- (6월 하순)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
- (7월 상순)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
- (7월 중순) 일시적으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.

【 1개월(6월 하순 ~ 7월 중순) 전망 요약 】

전국	평균기온	강수량
6월 하순	평년(20~24℃)보다 낮겠음	평년(45~149mm)보다 많겠음
7월 상순	평년(22~25℃)보다 높겠음	평년(61~153mm)과 비슷하겠음
7월 중순	평년(23~26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69~173mm)보다 많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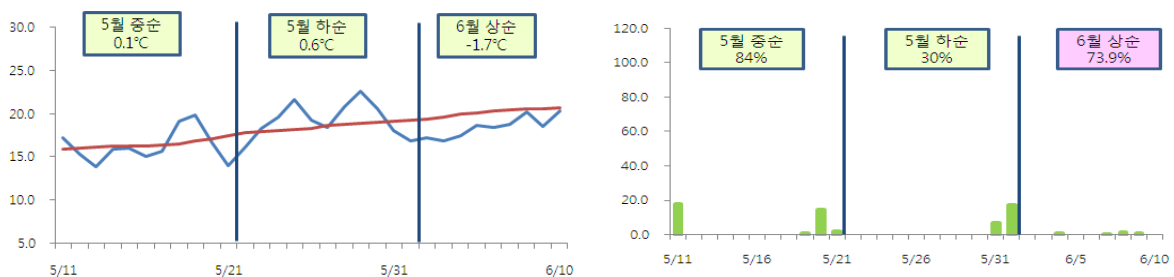
서울·인천·경기	평균기온	강수량
6월 하순	평년(22~23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45~61mm)과 비슷하겠음
7월 상순	평년(23~24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84~101mm)보다 많겠음
7월 중순	평년(23~25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128~159mm)보다 많겠음

1. 날씨 전망

- (라니냐 상태) 점차 회복되어 여름철에 평년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.
※ 해수면 온도 편차 : 5월 -0.3℃, 6월 첫째 주 -0.1℃
- (6월 하순)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한 기압골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오겠으며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음.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
- (7월 상순)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여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.
- (7월 중순) 북태평양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교대로 받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 일시적으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어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.

2. 최근 날씨 동향

- (5월 중순)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. 두 차례(11~12일, 19~20일)의 기압골 영향을 받았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음.
- (5월 하순)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강원도와 경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동쪽지방으로 찬 동풍이 유입되었으며, 서울·경기도를 비롯한 서쪽지방은 편* 현상으로 일시적인 고온이 나타났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. 21~23일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.
 - ※ 편 :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산을 타고 상승하면서 응결되어 비를 뿌린 후 산 정상을 넘어, 산 아래쪽에서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며, 영서지방에서는 “높새바람”이라고 불림.
- (6월 상순)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교대로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음. 1일과 8일에는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으며, 10일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남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.
- (황사) 12~13일에는 전국적으로, 14일에는 서울·경기·강원 일부지역에 황사가 나타났음.



최근 1개월 평균기온(좌)과 강수량(우)의 일변화(2011.05.11 ~ 06.10)

※ 첨부 1 :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(6월 21일 ~ 7월 20일)

※ 첨부 2 : 최근 10년간의 특이 기상 사례(6월 21일 ~ 7월 20일)

【 알 림 】

- 1개월 전망 전문은 “기상청 홈페이지→날씨→특보·예보→장기예보”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음 1개월 전망은 2011년 6월 23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
- 기후통계자료에 대한 문의는 기상청 기상자원과(02-2181-0887)로 하시기 바랍니다.

[첨부 1] 최근 10년간의 기후특성(6월 21일 ~ 7월 20일)

○ 평균 기압계

- 북태평양고기압과 중국 대륙의 저압부, 오호츠크해고기압의 경계로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장기간 정체하면서, 이 전선 상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며 흐리거나 비오는 날이 오래 지속됨.
-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많은 비가 내림.
-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 전면에 형성된 정체전선이 북상하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영향을 줌.
-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음.

○ 바람

- 전반적으로 남서풍이 우세함.

○ 우리나라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등

- (평균기온) 23.4℃ (6월 하순 22.6℃, 7월 상순 23.5, 7월 중순 24.3)
- (평균 총강수량) 335.7mm (6월 하순 74.3mm, 7월 상순 121.5mm, 7월 중순 139.8mm)
- (습도) 6월 하순 75.8%, 7월 상순 80.0%, 7월 중순 79.9%로 증가함.
- (강수일수 및 일조시간) 강수일수는 6월 하순 4.6일, 7월 상순 5.6일, 7월 중순 6.0일로 증가하며, 일조시간은 6월 하순 4.8시간, 7월 상·중순 4.0시간으로 감소함.

[첨부 2]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사례 (6월 21일~7월 20일)

○ 고온현상

- (2008년 7월 상순~7월 중순) 7월 상순 전반에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발해만 부근까지 북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(4.4일, 10년 평균대비 +3.3일)과 열대야(2.9일, 10년 평균대비 +1.7일)가 자주 발생하였음.
- (2005년 6월 하순)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북상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고온이 지속되었음. 특히 6월 25일은 전국 평균기온 32.5℃(평년편차 +6.2℃)로 6월 기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,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 극값(포항 37.7℃, 영덕 36.9℃, 영천 36.4℃)을 경신하였음.

○ 저온현상

- (2003년 7월 상순~7월 하순) 오호츠크해고기압이 강하게 유지되면서 장마전선이 남해안 부근에 정체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었으며, 해당기간의 전국 평균기온은 21.8℃(10년 평균대비 -2.0℃)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음.

○ 집중 호우

- (2009년 7월 7일)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강수량 20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음. 부산에서는 일강수량 310mm을 기록하였으며,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1시간 강수량 73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함.
- (2006년 7월 9~10일) 장마기간 중 태풍 '에위니아'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(진주 286.5mm, 마산 270.5mm)가 내렸음.
- (2001년 6월 24일) 장마전선과 태풍 '제비'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최고 303mm(남해)의 많은 비가 내렸음. 산사태가 발생하고, 농경지 1만여 ha 침수.